2027학년도 수시 모의논술고사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II)

◆ 유 의 사 항 ◆

1. 시험 시간은 100분임.
2. 답안은 검은색 펜이나 연필로 작성할 것.
3.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는 드러내지 말 것.
4.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할 것.
5. 답안은 해당 문항 답안지에만 작성할 것.

이 화 여 자 대 학 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존재 또는 공동체적 존재로서 이해하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찾았다. 그는 국가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물질적 자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유일하게 선과 악의 관념을 갖는 존재이며, 인간이 결합한 최고 단계의 공동체가 바로 국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구성원이 다양한 덕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구성원이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덕성을 가르쳐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 자유주의는 정치나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삶의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관념을 만들어내고, 그 영역을 정치나 사회와 같은 공적 세계의 반대편에 놓으려고 한다. 존 스튜어트 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인 행위는 오직 그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행위인 반면에 공적인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사적인 행위의 주체인 개인은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대해서 완전한 주권자로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존재이고,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사회는 오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간섭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밀은 개인이 더 높은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밀의 자유주의는 합리적 개인을 전제하고 있는데, 합리적 개인이 되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이러한 역할에 한정하여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였다.

존 듀이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로, 자유주의가 지닌 개인주의적 성향을 비판하고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듀이는 공적인 것의 발생은 인간 사이의 광범위한 교류 활동의 결과를 인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였다고 설명한다. 공적인 것의 발생에 대한 그의 설명은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 결과가 어떻게 공통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으로 인식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듀이는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가 당사자들의 범위를 넘어 제삼자들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공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제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듀이의 관점은 자유주의가 자유를 단지 간섭의 부재로만 규정하면서 사적인 계약의 자유는 철칙으로서 사회나 국가가 그것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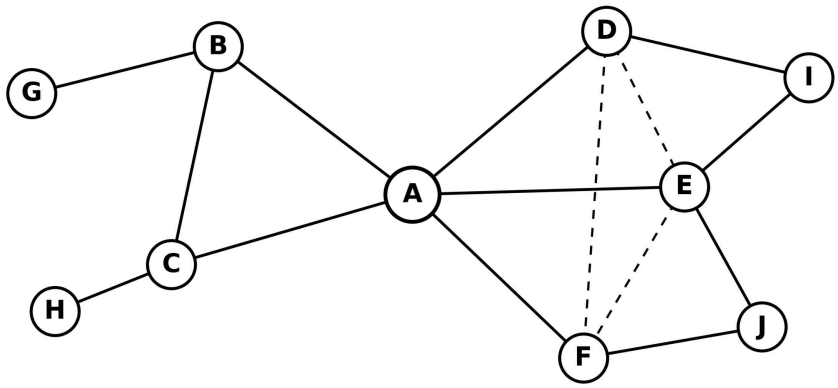
[다] 만약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더 이상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면 원시적인 상태는 존재하기 어려워질 것이며 인류는 생존 양식을 바꾸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단지 기존의 힘을 통합하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힘의 통합은 다수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들은 자신을 보존하기 위한 힘과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연합의 형태,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각 개인이 전체와 결합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는 연합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사회계약에서 찾을 수 있다. (중략)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인격과 능력을 ‘일반의지’라는 최고의 감독 아래에 놓음으로써, 우리 각자가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몸으로 통합한다. 이러한 결합체는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을 대신하여 다수로 구성된 도덕적 집합체를 형성하고 공통의 목소리와 통일성·자아·생명·의지를 반영한 공적 인격을 만들어낸다.

[라] 백제 제30대 무왕(武王)의 이름은 장(璋)이다. 그의 어머니는 홀로 도성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다가 못 속의 용(龍)과 관계를 맺어 장을 낳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주와 도량이 매우 뛰어났고, 늘 마를 캐어 파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서동(薯童)이라 불렀다.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인 선화가 매우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선화 공주를 만나고자 하였다. 그는 머리를 깎은 뒤 신라의 도성으로 가서, 동네 아이들에게 마를 나누어 주며 아이들과 친하게 지냈다. 이어 아이들이 쉽게 기억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였다.

선화 공주님은
남모르게 정을 통해 두고
맛둥 도련님(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 동요는 수도에 가득 퍼져 궁궐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백관들은 힘껏 간하여 공주를 먼 곳으로 유배 보내게 했다. 공주가 떠날 때 왕후는 순금 한 말을 여비로 주었다. 공주가 유배지에 이르렀을 즈음, 서동이 길에 나와 절을 하며 공주를 모시고 가겠다고 하였다. 공주는 그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으나, 우연한 만남을 기쁘게 여기고 그를 믿고 따라가 몰래 정을 통하였다. 그런 뒤에야 공주는 서동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앞서 퍼졌던 동요의 징험을 믿게 되었다.

[마] 가짜 뉴스는 단순한 오보와 달리,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된 거짓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판단과 공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는 가짜 뉴스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용자에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그 확산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의 연결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는 직접 게시물을 작성할 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재전달함으로써 정보의 확산에 참여한다. 이때 이용자는 네트워크의 노드가 되고, 팔로우 관계는 노드와 노드를 잇는 연결선이 된다.



<그림 1>

네트워크에서 한 노드가 가진 연결선의 수를 연결 정도라고 한다. 연결 정도가 높은 노드는 많은 사람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정보 확산에서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림 1>에서 A는 B, C, D, E, F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B보다 연결 정도가 높다. 이처럼 연결 정도가 높은 노드는 네트워크 안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워가 많거나 영향력이 큰 이용자는 허브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이용자가 가짜 뉴스를 공유하면 그 정보는 여러 사람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 또한 이미 많은 연결을 가진 이용자는 더 쉽게 주목을 받고, 그 이용자가 올린 정보는 다시 더 많은 공유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많은 연결을 가진 노드가 새로운 연결을 더 쉽게 얻는 현상을 선호적 연결이라고 한다.

네트워크의 밀도도 정보 확산에 영향을 준다. 밀도는 네트워크 안의 노드들이 서로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실선은 이미 형성된 연결선을 나타내고, 점선은 추가로 형성될 수 있는 연결선을 나타낸다. 만약 D, E, F 사이에 점선으로 표시된 연결이 추가로 생기면, 네트워크의 밀도는 높아진다. 밀도가 높은 네트워크에서는 하나의 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빠르게 퍼질 수 있다. 반면 밀도가 낮은 네트워크에서는 정보가 특정 집단 안에 머무르거나 천천히 확산될 수 있다.

한 연구는 중국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시나웨이보에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중 포워딩 제한 정책은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공유한 특정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를 다시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 조치는 해당 이용자와 직접 연결된 팔로워들 사이에서 가짜 뉴스가 다시 전달되는 것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정책만으로 가짜 뉴스의 확산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웠다. 소셜 미디어의 정보 확산은 하나의 경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용자가 복잡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정 이용자의 포워딩을 제한하더라도,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거나 다른 허브 노드가 같은 정보를 공유하면 가짜 뉴스는 다른 경로를 통해 계속 퍼질 수 있다.

1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정리하고, 그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의 존 스튜어트 밀과 존 듀이의 입장을 각각 비교하시오. [20점]

(2) 제시문 [나]에 나타난 두 대립적 관점에 대한 제시문 [다]의 견해를 설명하시오. [20점]

2 제시문 [마]의 소셜 미디어상 가짜 뉴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제시문 [라]의 「서동요」의 확산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개념을 적용하여 「서동요」의 확산을 막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시오.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Ⅰ] 환율은 자국 화폐로 표시한 외국 화폐의 가격으로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상의 국가인 E국의 화폐를 크립토라고 하자. 한국과 E국은 무역 거래가 활발하고, E국의 크립토화는 전 세계 무역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축통화이다. 크립토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E국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 자산 등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크립토화의 수요자가 되며, 이를 크립토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고 표현한다. 한편, 한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가 E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면, 수입 대금을 크립토화로 받게 된다. 해당 제조업체가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지출이 필요하게 되면 크립토화를 원화로 교환할 필요가 생기게 되며, 이를 크립토화에 대한 공급이 발생한다고 표현한다. 1크립토화에 대한 원화의 균형 가격인 환율은 크립토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크립토화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환율은 상승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환율은 하락한다. 수요가 공급보다 부족하면 환율은 하락하고,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면 환율은 상승한다.

[Ⅱ] 한국 경제는 원칙적으로 환율이 외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환율이 급격히 변할 때는 중앙은행이 외환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중앙은행은 크립토로 표시된 외환 보유고를 충분하게 유지하여 환율이 급등할 때는 크립토화를 팔고 원화를 사들임으로써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 외환 시장을 안정시킨다. 이러한 안정화 정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1) 제시문 [Ⅰ]을 바탕으로 아래 상황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오. [10점]

> 한국 거주자의 크립토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크립토 예금이다. 최근 한국 내에서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거주자 크립토 예금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아래 무역투자협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제시문 [Ⅰ]과 제시문 [Ⅱ]를 참조하여 설명하시오. [10점]

> 최근 한국과 E국 사이에 타결된 무역투자협정의 핵심은 E국이 한국에 관세를 낮춰주는 조건으로 한국이 E국에 3,500억 크립토를 투자한다는 것이다. 특히, E국의 조선업 인프라에 1,500억 크립토를 우선 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2,000억 크립토를 E국의 반도체·인공지능 등의 공급망 구축 및 항공기 구매에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는 2029년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3)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안정과 더불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상승률 2%와 외환보유고 3천억 크립토라고 가정하자. 만약 물가상승률이 π%이고 외환보유고가 κ천억 크립토라면, 중앙은행의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W(\pi,\kappa)=0.1\times(\pi-2)^2+0.5\times\max(3-\kappa,0).$$

중앙은행은 위의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려 한다. 함수 $\max(a,b)$는 a, b중 큰 값이다. 미래 상황에 대한 손실함수는 예상 물가상승률(π^e)과 예상 외환보유고(κ^e)를 대입하면 된다.

$$W(\pi^e,\kappa^e)=0.1\times(\pi^e-2)^2+0.5\times\max(3-\kappa^e,0).$$

예상 물가상승률은 물가상승률 기댓값이며, 예상 외환보유고는 외환보유고 기댓값이다. 아래에 제시된 내년도 두 시나리오 가운데 중앙은행이 더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인지 답하고 근거를 제시하시오. [10점]

> [시나리오 A]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3%가 될 확률은 0.5, 5%가 될 확률은 0.5이다. 그리고, 내년도 외환보유고가 2천억 크립토가 될 확률은 0.6, 4천억 크립토가 될 확률은 0.4이다.
> [시나리오 B]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3.5%가 될 확률은 0.5, 4.5%가 될 확률은 0.5이다. 그리고, 내년도 외환보유고가 3천억 크립토가 될 확률은 0.2, 5천억 크립토가 될 확률은 0.8이다.